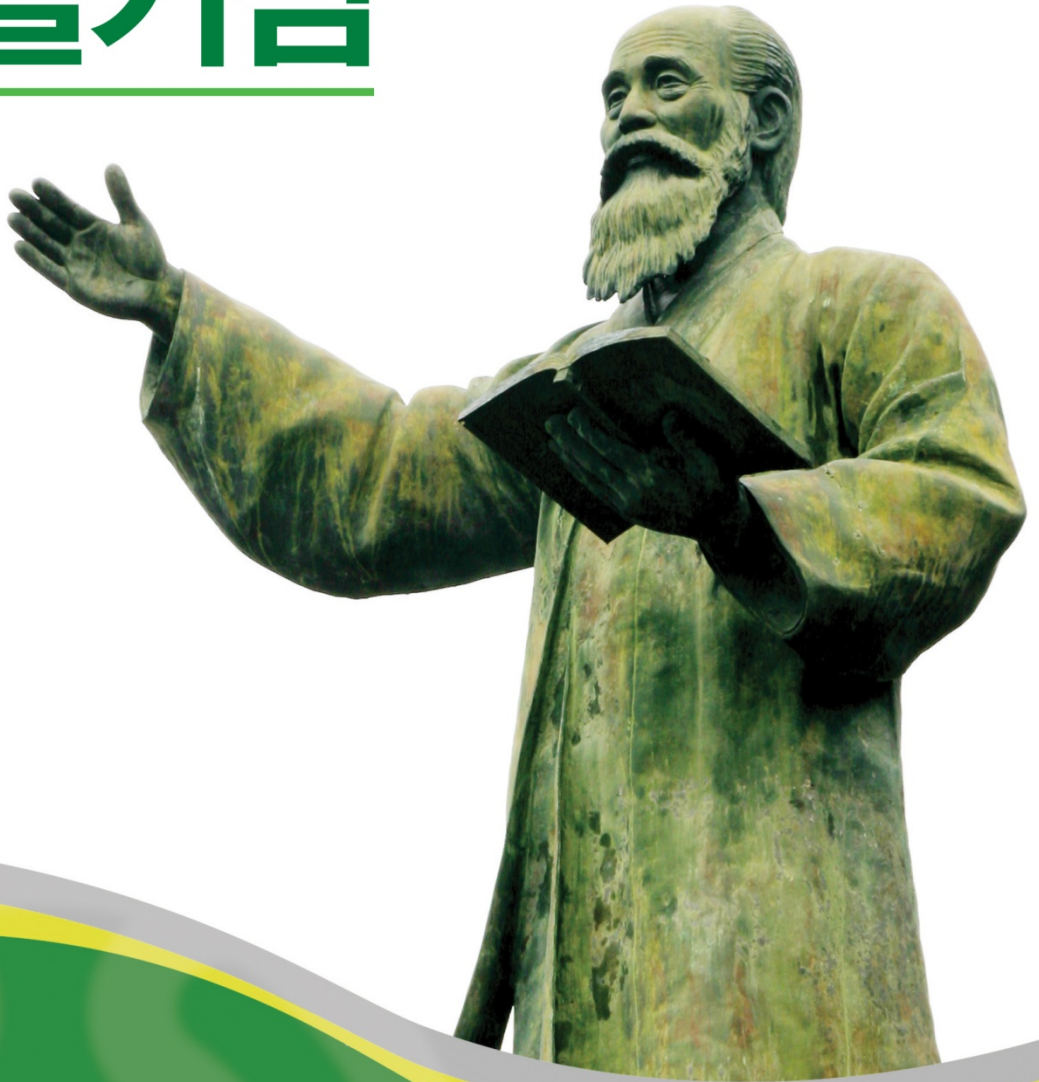

제155주년

지일기념



포덕 159(2018)년 8월 14일

대도중흥 비전 21

동덕들이여 일어납시다!
다함께 나아갑시다!
대도중흥의 길로!

포덕 역량의 구축 !

- 하나. 중앙총부 혁신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교헌을 개정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신앙심을 강화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전문교역자 양성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연구기관 육성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지방교구 활성화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수도원을 활성화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포덕 환경의 확충 !

- 하나. 도서관을 활용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박물관을 설립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홍보전시관 설립으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성지를 성역화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여성·청년포덕으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인터넷 신문 발행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방송국을 개국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포덕 광제의 실천 !

- 하나. 현도정신 선양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복지사업 육성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삼일정신을 현창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민족통일 앞장서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해외포덕 개척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인내천사상으로 대도중흥 합시다!

포덕 159년

地 日 記 념



포덕 159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 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 제29장 지일기념가	14
수심정기	17
해월 최시형 신사 약력	22
문화공연 순서	24
해월신사 존영	29
대도중흥 비전21 실천강령	30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수심정기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포 상

1. 천덕송 합창_ 제29장 지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사인여천나눔행사]

- 문화공연(기념식후 축하공연) : 역사어린이합창단
- 나눔행사 : 기념품 제공

[소파동요발표회]

- 일시/장소 : 8월 14일(화) 오후2시 / 중앙대교당
- 주관 : 어린이가행복한나라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월신사께서 수운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으셔서 천도교 2세 교조가 되신지 155주년이 되는 지일기념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월신사께서 순도하신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통전수에서 순도에 이르기까지, 해월신사의 30여 년 포덕 일생은 도산검수의 고난과 곡절로 점철된 역사인 것입니다.

해월신사는 수도에 전념하던 중 포덕 4년 8월 14일, 수심정기의 도법과 함께 도통을 전수받으시고 수운대

신사께서 당부하신 사명(師命)을 염념불망하시며 일생을 일이관지 하셨습니다. 스스로 한울사람으로서 사표(師表)가 되시었고, 깨달아 얻은 진리, 체득하여 익힌 진리, 실행하여 증험한 진리를 우리에게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고비에 봉착할 때마다 해월신사께서는 수도와 연성으로서 스스로의 기운을 회복하고, 도의 운수를 맑고 밝게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시용활(用時用活)의 지혜와 용단을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아가기를 거듭하셨습니다. 해월신사는 순도로써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 도통은 의암선사와 춘암상사를 거쳐 우리에게 이어져 왔으며 그 가르침은 높고도 멀리 퍼져가고 있으니, 해월신사 또한 수운대신사와 마찬가지로 성공자거(成功者去)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월신사 승통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월신사께서 위기를 극복하시던 그 지혜로운 실천궁행의 정신을 본받고, 해월신사께서 순도의 순간까지도 앞으로 내 죽은 10년 안에 주문 소리가 장안에 울려 퍼질 것이다 고 장담을 하시던 그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새겨 대도중흥과 포덕광제의 천명사훈을 실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전은 해마다 그 속도를 더해 가기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은 나날이 멀어지는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해월신사의 사인여천 정신을 그리워하고, 물물천(物物天) 사사천(事事天)과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총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월신사 생가복원 및 성역화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월신사의

발자취를 뚜렷하게 복원하고 성역화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억하는 계기로 삼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해월신사께서는 우리나라가 삼절운을 겪고 난 뒤에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에 이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과 화해상생의 시대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 체결도 가시권 내에 들어올 것입니다.

특히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발표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 선언의 실행을 위

한 실무회담의 서막을 연 것은 남북한 간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황폐화된 북한지역 산림을 녹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월신사께서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 다 비단을 펴고, 만국과 교역하는 때”에 우리 도가 크게 현도 된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포덕 159년 지일기념을 전후로 이 한반도에 천시와 지리가 조화를 이루는 광경이 이와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라고 하신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믿고, 공경하며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지금의 통일을 향해 열리는 성운은 지난 159년의 천도교 역사에서 동학혁명과 3.1운동, 남북분단 등의 역사적 고비마다 크나큰 희생을 치렀던 천도교 선열들의 성령이 음우하신 결과이며, 그동안 봉행하여 온 대도중

흥, 중일변, 민족통일을 위한 특별기도 때마다 보국안민 광제창생을 염원해 온 그 정성에 한울님이 감응하신 은덕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의 통일은 천도교의 보국안민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그 기운을 살려나가는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앙총부는 바로 이러한 원대한 뜻을 기반으로 남북교류 통일성금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을 모으는 동귀일체 운동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천도교의 역할과 위상을 뚜렷이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체천행도의 실천운동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안팎으로 기회와 위기, 성운과 쇠운이 갈아드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바로 내년의 3.1운동 100주

년을 기념하여 대도중흥, 중일변, 민족통일의 비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100년을 기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총부는 천도교연구소에 의뢰하여 교단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법을 가다듬어서 일월(一曰) 포덕, 이월(二曰) 포덕, 삼월(三曰) 포덕의 뜻을 몸과 마음으로 체계화하여, 일동일정을 포덕과 연계하여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쉬지 않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해월신사께서 대인접물 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해야만 한울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울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감응을 받고, 동덕들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동귀일체 할 때만이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하신 해월신사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 해월신사 승통 제155주년이 되는 천도교단 안팎에서는 이처럼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며, 우리의 정성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월신사의 거룩한 포덕광제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대도중흥, 중일변, 민족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9(2018)년 8월 14일

천도교 교령 이 정 희 심고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짜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짜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29장 지일기념가

1. 장 -- 하 도다 오 늘 은
 2. 장 -- 하 도다 오 늘 은
 3. 장 -- 하 도다 오 늘 은

1. 팔 월 십 사 일 --
 2. 팔 월 십 사 일 --
 3. 팔 월 십 사 일 --

1. 사 - 해 운 - 중 밝 은 달 이
 2. 해 - 월 신 - 사 승 통 한 날
 3. 해 - 월 신 - 사 무 극 대 도

1. 솟 아 을 - 라 서 --
 2. 도 통 이 어 받 어 --
 3. 이 어 받 - 은 날 --

1. 어 든 세 - 상 명 랑 하 게
 2. 이 세 교 - 조 되 - 셔 서
 3. 어 든 세 - 상 밝 아 온 날

1. 비 취 주 - 신 날 -
 2. 세 상 진 지 신 날 -
 3. 창 생 살 아 난 날 -

1.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2.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3.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1. 지 일 기 - 념 일 -
 2. 지 일 기 - 념 일 -
 3. 지 일 기 - 념 일 -

후렴

보 - 아 라 휘 날 리 는

궁 을 깃 - 발 을 -

이 - 땅 위 - 에 궁 을 꽃

피 워 를 - 보 세 -

守心正氣 (수심정기)

人能清其心源 淨其氣海 萬塵不污 慾念不生 天地精神 總歸一身之中 心無清明 其人愚昧 心無塵埃 其人賢哲

燈得膏油以後 光焰明明 鏡得水銀以後 照物昭昭 器得火炎熔煉以後 體質堅堅 人得心神教訓以後 意思靈靈矣

身體心靈之舍也 心靈身體之主也 心靈之有 爲一身之安靜也 慾念之有 爲一身之擾亂也

心靈惟天也 高而無上 大而無極 神神靈靈 浩浩蕩蕩 臨事明知 對物恭之 思之則 天理得焉 不思之則 不得衆理矣 心靈思之 六官不思之 以心靈 明其心靈 玄妙之理 無窮之造化 可得而用之 用之則 滿乎宇宙之間 廢之則 藏乎一粒之中矣

鏡不蔽垢則 明 衡不加物則 平 珠不渾於則 光矣 人之性靈也 如天之日月 日中則 萬國自明 月中則 千江自照 性中則 百體自安 靈中則 萬事自神矣

廣廈千間 主人 不能保護 其棟樑 風雨倒壞 可不懼哉

我心不敬 天地不敬 我心不安 天地不安 我心不敬不安 天地父母

長時不順也 此無異於不孝之事 逆其天地父母之志 不孝莫大於此也
戒之慎之

猛虎在前 長劍臨頭 霹靂降下 不懼 唯獨 無言無聲之天 常畏懼矣
人皆由人之禍福 當場易見 無形 無言 天之禍福 難見矣

世人 皆謂蜀道險難矣 蜀道無險 人心尤險

「守心正氣」四字 更補天地 隕絕之氣 經曰「仁義禮智 先聖之所教
守心正氣 惟我之更定」若非守心正氣則 仁義禮智之道 難以實踐也
吾 着睡之前 曷敢忘 水雲大先生主 訓教也 洞洞燭燭 無晝無夜

諸君 能知守心正氣乎 能知守心正氣之法 入聖何難 守心正氣 萬
難中 第一難也 雖昏寢之時 能知他人之出入 能聽他人之言笑 可謂
守心正氣也 守心正氣之法 孝悌溫恭 保護此心 如保赤子 寂寂無忿
起之心 惺惺無昏昧之心 可也

心不喜樂 天不感應 心常喜樂 天常感應 我心我敬 天亦悅樂 守心
正氣 是近天地我心也 真心 天必好之 天必樂之

사람이 능히 그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고 그 기운바다를 깨끗이 하면 만진이 더럽히지 않고, 욕념이 생기지 아니하면 천지의 정신이 전부 한 몸안에 돌아오는 것이니라. 마음이 맑고 밝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우매하고, 마음에 티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현철하느니라.

등불은 기름을 부은 뒤에라야 불빛이 환히 밝고, 거울은 수은을 칠한 뒤에라야 물건이 분명히 비치고, 그릇은 불에 녹아 단련된 뒤에라야 체질이 굳고 좋으며, 사람은 마음에 한울님의 가르침을 얻은 뒤에라야 뜻과 생각이 신령한 것이니라.

몸은 심령의 집이요 심령은 몸의 주인이니, 심령의 있음은 일신의 안정이 되는 것이요, 욕념의 있음은 일신의 요란이 되는 것이니라.

심령은 오직 한울이니, 높아서 위가 없고 커서 끝이 없으며, 신령하고 호탕하며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함에 공손하니라. 생각을 하면 한울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않으면 많은 이치를 얻지 못할 것이니, 심령이 생각하는 것이요, 육관(눈·귀·코·혀·몸·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라.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어 쓸 수 있으니, 쓰면 우주 사이에 차고 폐하면 한 쌀알 가운데도 감추어 지느니라.

거울이 티끌에 가리우지 않으면 밝고, 저울에 물건을 더하지 않으면 평하고, 구슬이 진흙에 섞이지 않으면 빛나느니라. 사람의 성

령은 한울의 일월과 같으니, 해가 중천에 이르면 만국이 자연히 밝고, 달이 중천에 이르면 천강이 자연히 빛나고, 성품이 중심에 이르면 백체가 자연히 편안하고, 영기가 중심에 이르면 만사가 자연히 신통한 것이니라.

넓고 큰 집이 천간이라도 주인이 잘 보호치 않으면 그 기둥과 들보가 비바람에 무너지나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은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요, 내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것은 천지가 편안치 않은 것이니라. 내 마음을 공경치 아니하고 내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천지부모에게 오래도록 순종치 않는 것이니, 이는 불효한 일과 다름이 없느니라. 천지부모의 뜻을 거슬리는 것은 불효가 이에서 더 큰 것이 없으니 경계하고 삼가하라.

사나운 범이 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리어도 무섭지 아니하나, 오직 말 없고 소리 없는 한울이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니라. 사람이 다 사람으로 연유하여 생기는 화복은 당장에 보기 쉬우나,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한울의 화복은 보기 어려운 것이니라.

세상 사람이 다 속도가 험난하다고 이르나, 속도가 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길이 더욱 험한 것이니라.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

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라」하셨으니, 만일 수심정기가 아니면 인의예지의 도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내 눈을 붙이기 전에 어찌 감히 수운대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잊으리오. 삼가서 조심하기를 밤낮이 없게 하느니라.

그대들은 수심정기를 아는가. 능히 수심정기하는 법을 알면 성인 되기가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수심정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니라. 비록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을 알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가히 수심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수심정기 하는 법은 효·제·온·공이니 이 마음 보호하기를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같이 하며,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함이 옳으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한울이 감응치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이 언제나 감응하느니라.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한울이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수심정기는 바로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이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이 반드시 즐거워 하느니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신사 약력

- 포덕전33년(1827)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탄생하시다.
부친은 경주 최씨(慶州 崔氏) 종수(宗秀),
모친은 월성 배씨(月城 裴氏).
본래 이름은 경상(慶翔), 포덕 16년에 시형(時亨)으로 고치시다.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시다.
- 포덕 02년(1861) 35세에 경주 용담에서 입도하시다.
- 포덕 04년(1863) 7월, 대신사로부터 해월(海月)의 도호를 받으신 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시다.
8월 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시다.
- 포덕 08년(1867) 10월, 「양천주(養天主)」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12년(1871) 3월, 영해에서 교도 6백여명을 동원,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13년(1872) 1월, 「대인접물(待人接物)」에 대한 설법을 하시다.
- 포덕 21년(1880) 5월,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시고
6월 15일, 경전 간행 치성제를 행하시다.
- 포덕 22년(1881) 6월, 단양 남면 샘골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시다.
- 포덕 24년(1883) 2월, 충청도 목천에서 『동경대전』 1,000부를 간행하시다.

- 포덕 25년(1884) 10월, 조직편제의 하나로 6임제(六任制)를 정하시다.
- 포덕 26년(1885) 9월,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31년(1890) 11월, 금릉군 복호동에서 「내수도문」과 「내칙」을 반포하시다.
- 포덕 32년(1891) 10월, 「임사실천(臨事實踐) 10개조」를 반포하시다.
- 포덕 33년(1892) 10월에 공주에서, 11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34년(1893) 1월, 「천지부모」에 관한 통유문을 반포하시다.
2월,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전에서 복합상소, 3월, 보은 장내리와 전라도 원평에서 3만명이 모여 척왜양창의 운동을 하시다.
- 포덕 35년(1894) 3월 21일, 백산에서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가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 동학혁명의 깃발을 올린다.
5월, 청일양군(淸日兩軍)이 상륙하여 주권을 침해하자 9월 18일, 해월신사는 옥천 청산에서 총기포령을 내려 항쟁에 나서게 하다.
12월, 공주전투를 고비로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혁명운동은 잠정상태로 들어가다.
- 포덕 38년(1897) 4월 5일, 「향아설위」의 의식을 행하시다.
12월 24일, 도통을 의암성사께 전수하시다.
- 포덕 39년(1898)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현에게 피체되시어
6월 2일, 한성(경성)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교수형으로 순도하시다.

사인여천나눔행사

<문화공연 순서>

1. 뭉게 구름
2. 아름다운 세상
3. 반 달
4. 피렌체의 꽃파는 아가씨
5. 해월 최시형

몽계구름

이정선 작사

이정선 작곡

♩ = 132 ♪ = ♪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 몽계구름이 - 되어
 이하늘 끝까지 가는 날 - 맑은 빛 물이 - 되어



저 푸른하늘 벗삼아 - 훨훨 날아다니리라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 모두다 만나면 -



우리는 또 다시 등글게 - 몽계구름 되리라 -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 작사/작곡

문득 외롭다 느낀 때 - 하늘을 봐요 -
 혼자 선 이를 수 없죠 - 세상 무엇도 -

5
 같은 태양 아래 - 있어요 - 우린 - 하나 - 예요 -
 9
 마주 잡은 두 손 - - 으로 - 사랑 - 을 키 - 워요 -

13
 마주 치는 눈빛 - 으로 - 만들어 가요 -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 안개 꽃 처럼 -

17
 나지막히 함께 - 불러요 - 사랑 - 의 노 - 래를 - 작은
 서로가 곱게 감 - 싸 줘요 - 모두 - 여기 - 모여 -

21
 - 가슴 - 가슴 - 마다 고운 - 사랑 - 모아 - 우리

26
 - 함께 - - 만들어 가요 - 아 름 - 다운 - 세상 -

31
 작은 - 가슴 - 가슴 - 마다 고운 - 사랑 - 모아
 라라 - 라라 - 라라 샤랄 - 라라 - 라라

36
 2
 - 우리 - 함께 - - 만 들어 가요 - 아 름 - 다운 - 세상 - 샤랄
 우리 - 함께 - - 만 들어 가요 - 아 름 - 다운 - 세상

라 아 름 다운 세 상 -

반 달

윤극영 작사 / 작곡



푸 른하 늘 은 - 하 수 하 얀 쪽 배 에
은 하 수 를 건 - 너 서 구 름 나 라 로



계 수 나 무 한 - 나 무 토 끼 한 마 리
구 름 나 라 지 - 나 선 어 디 로 가 나



뫘 대 도 아 니 달 고 샷 대 도 없 이
멀 리 서 반 짝 반 짝 비 치 이 는 건



가 기 도 잘 도 간 다 서 - 쪽 나 라 로
샷 별 이 등 대 란 다 길 - 을 찾 아 라

해월 최시형

♩ = 64

박용진 작사/작곡



한 - 울 님 마음 힘써 기르 라는 양 천 주 설 펼 치 셴 고
일 천 팔 백 이 십 칠 년 경 상 북 도 경 주 에 서 나 시 었 죠



경 천 경 인 경 물 삼 경 사 상 통 해 한 울 타 리 전 하 셴 죠
초 명 경 상 호 는 해 월 본 관 경 주 동 학 발 전 크 신 업 적



동 학 의 참 진 리 를 깨 우 치 며 동 학 포 교 에 정 진 했 고
교 조 신 원 운 동 을 전 개 하 고 교 세 확 장 에 몰 두 했 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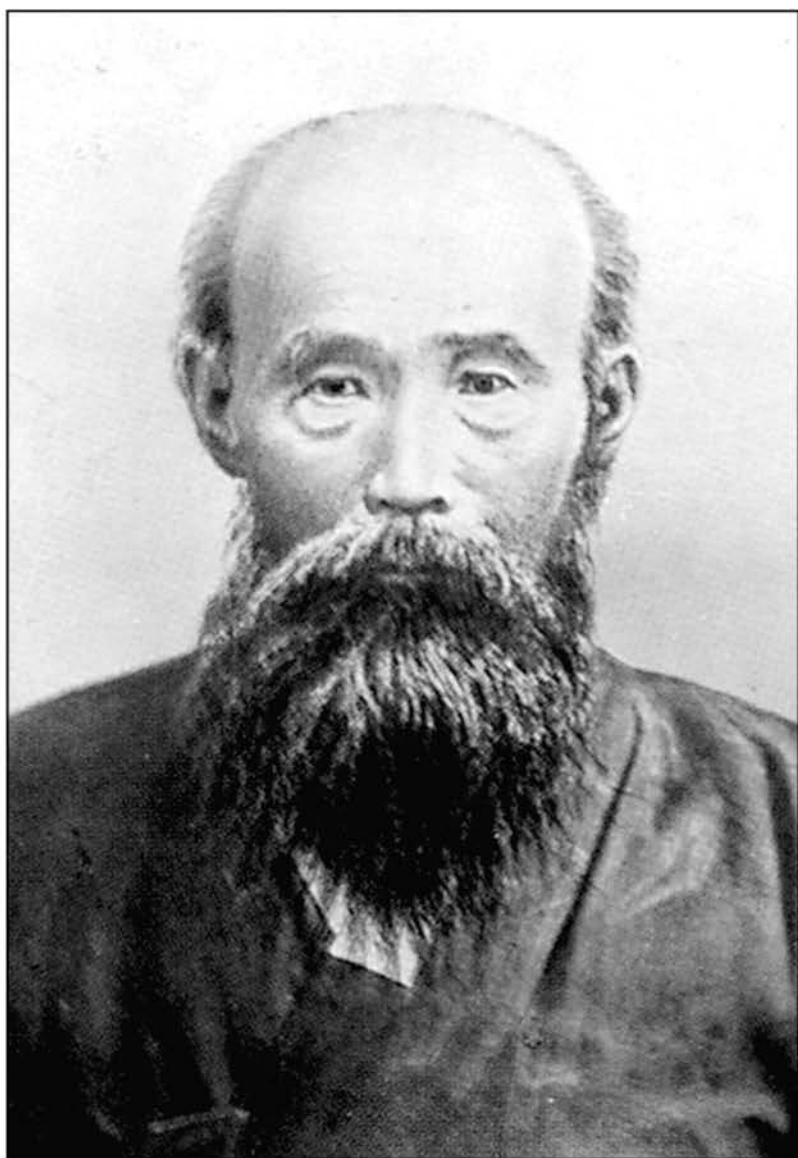
북 도 중 주 인 임 명 천 도 교 의 제 2 세 교 조 되 - 셴 죠
동 학 농 민 혁 명 이 일 어 나 자 무 장 투 쟁 을 전 개 했 죠



용 담 유 사 동 경 대 전 동 학 경 전 발 간 하 셴 고
신 도 들 과 조 국 사 랑 펼 치 셴 네 척 왜 양 창 의



육 - 임 제 조 직 하 고 육 - 임 소 설 치 하 셴 죠
동 학 발 전 헌 신 하 다 순 교 하 신 해 월 최 시 형



해월신사 존영

대도중흥 비전21 실천강령

우리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포덕역량의 구축

- 하나. 수심정기 생활을 합니다!
- 하나. 주문을 항상 외웁시다!
- 하나. 모든 의식에 청수를 봉전합니다!
- 하나. 시일식에 빠지지 맙시다!
- 하나. 성미를 제 때에 납부합니다!
- 하나. 기도와 수련을 생활화 합니다!
- 하나. 성경신을 지극히 실천합니다!

포덕환경의 확충

- 하나. 아내와 남편 간에 화목하게 지냅니다!
- 하나. 부모와 자녀 간에 친하게 지냅니다!
- 하나. 고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껴줍니다!
- 하나. 가족 간에 서로 경어를 사용합니다!
- 하나. 어린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 하나. 매사에 감사함과 희망을 가집니다!
- 하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포덕광제의 실천

- 하나. 사인여천을 실천합니다!
- 하나. 경물사상을 실천합니다!
- 하나. 봉사활동에 앞장섭시다!
- 하나.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 하나. 웃는 얼굴로 생활합니다!
- 하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 하나. 이웃에게 모범이 됩니다!

1인 1포
10년
300만
만들

교구는 이렇게 변화합시다

- 하나. 청소년 포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합시다!
- 하나. 교구 일은 젊은이를 앞세웁시다!
- 하나. 어린이를 즐겁게하는 교구로 만듭시다!
- 하나. 정기적인 교구합동 강도회를 개최합시다!
- 하나. 지역 합동 시일을 정례화 합시다!
- 하나. 휴면 교인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 하나. 따뜻한 정이 넘치는 교구를 만듭시다!
- 하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구가 됩시다!
- 하나. 신입교인에게 정성을 다합시다!
- 하나. 교인들 경조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 하나. 청년회, 여성회 활동을 활성화합시다!

총부는 이렇게 변화합시다

- 하나. 항상 교구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 하나. 전 기관이 포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시다!
- 하나. 설교자의 자질을 향상시킵시다!
- 하나. 신입교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합시다!
- 하나. 수도권 현대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 하나. 교구와 소통합시다!
- 하나. 포덕대회를 개최하여 교구를 지원합시다!
- 하나. 우수 교구 및 모범교인을 포상합시다!
- 하나. 포덕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합시다!
- 하나. 해외포덕사를 양성합시다!

덕으로
안에
교단을
시다!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